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면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시베리아대평원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왜소함을 동시에 느끼고, 6박7일의 긴 시간은 사색을 하게 만든다.

/시베리아=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유라시아 대장정

⑤ 시베리아 횡단열차

전남교육청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열차학교 동행 취재

시속 80km로 달리는 열차
인터넷 안되는 밀폐된 곳서
진로 상담하고 음악회 열고
멈추면 짐통되는 열차서 내려
간이역 군것질은 또다른 재미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많은 이들에게 일생일대의 로망이자 버킷리스트다. 7일동안 열악한 열차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탓에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여행을 해 본 경험자로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물론 '반 거지 생활'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대화가 없는 가족이라면 가족여행으로 강추한다. 6박7일동안 조그마한 열차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데다, 결정적으로 열차가 달리는 동안에는 인터넷과 카톡이 되지 않아 가족간 대화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를 달린다. 속도는 무궁화호와 비슷한 시속 80~90km다. 6박7일을 쉬지 않고 달리는 특성상 식당차를 제외하면 모두 침대차다. 기관차는 디젤이 아니라 전동차다.

8월2일 오전 10시 시베리아 횡단열차 258호. 전남교육청 독서토론 열차학교 참가자들이 열차에 탑승했다. 열차는 총 15량이었다. 맨 앞에 기관차가

있고, 이어 수하물차 2량, 침대차 6량, 침식당차 1량, 그리고 또 침대차 6량이다.

침대차 한 량엔 약 3㎡ 크기의 방 9개가 있다. 방은 2인실과 4인실로 나뉘어져 있다. 침대의 길이와 폭은 키 170cm 성인인 딱바로 누우면 딱 잘 정도로 짧고 좁다. 방에는 1층에 침대 2개, 2층에 침대 2개 등 총 4개의 침대가 있다. 1층 침대는 취침 때를 제외하고는 생활공간이 된다. 1층 침대에 앉아 식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애기꽃을 피운다. 또 이 열차는 학교인만큼 수업도 진행됐다.

열차 안은 '절대 구속 속의 자유의 공간'이다. 제한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 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시베리아 별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꿈과 고민에 대해 자유롭게 나래를 펴고, I-Brand 주제에 대해 치열한 토의·토론이 전개된다.

기차에서는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악기 연주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모여 작은 음악회를 연 것이다. 답답한 물리적 제약에 굴하지 않고 자유로움과 흥을 찾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생

들의 생존 방식이다.

식당에서는 진로로드맵 수업이 진행됐다. 진로진학 전문가인 성태모 교사(능주교)의 진로진학 특강은 물론 개별 상담이 이뤄졌다. 또 최광철 교사(순천복성교)의 철학토론, 신원호 교사(영광염산중)의 과학토론, 윤학근 교사(고흥교)의 인문학 수업도 번갈아 진행됐다.

수업이 없을 때는 창밖을 보며 '멍'을 때린다. 누군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면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고 했다. 차량 밖으로 보이지 않는 녹색 평원에 하늘로 뚝뚝 뻗은 나무와 무성한 수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선로 옆은 분홍과 노랑 등 다양한 색의 꽃 잔디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시베리아 대평원을 지나다보면 한편으로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왜소함을 느끼고 된다.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데다, 갈 곳 없는 열차 안이라 사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기도 하다.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가족 생각, 친구 생각, 동료 생각이 저절로 난다.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가'라며 스스로에게 묻기도 한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자주 덜컹거린다. 옛날 완행열차를 탈 때가 연상된다.

열차는 4~6시간을 달린 뒤 간이역에 멈춰 선다.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거치는 간이역은 60개 정도. 간이역에선 짧게는 2분, 길게는 40분을 쉰다. 워낙 긴 구간을 이동하는 만큼 중간중간 간이역에 멈춰 물을 보충하고 열차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열차가 멈추면 승객들은 내리는 게 좋다. 스트레칭으로 빼어난 몸을 풀고, 군것질을 하기 위해서다. 간이역에서의 군것질은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열차가 멈추면 열차 안은 짐



침대는 취침 때를 제외하고는 생활공간이 된다.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수업도 한다. 영광염산중 신원호 교사가 과학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베리아=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통이 되는 탓이다. 열차에 별도의 발전차가 없어 달릴 때만 냉난방이 공급되고 멈추면 끄긴다.

식사는 기본적으로 양식이다. 샐러드와 함께 감자, 돼지고기 등 메인 요리가 한 접시에 담겨 나온다.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차에 앉으면 직원들이 차례로 요리를 낸다.

방에서는 커피면과 컵밥을 조리해 먹는다. 객차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큰 물탱크가 있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제일 어려운 점은 씻기다. 샤워실이 없고 1㎡ 크

기의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만 줄줄 나온다. 꼭지 아래에 달린 코르크를 눌러 위로 올려야 물이 나온다. 화장실은 소변·대변을 그대로 선로에 버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열차가 역에 멈춰 서면 변기를 사용할 수 없다.

열차학교에 참가한 신민정 양은 "생각과 사교의 폭을 넓히고, 나 자신에 대해 여유를 갖고 바라볼 수 있었다"며 "열차학교는 느낌표와 심표가 공존했던 조화로운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시베리아=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교육청, 목포~북한~시베리아 열차학교 추진

전세계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교통물류망으로 연결해 사람과 물자가 국경을 넘나들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유라시아 친선특급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유라시아 교통물류망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엔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다. 지금은 나진항에서 배를 이용해야 하지만, 남북 간에 한반도중단철도(TKR)가 재건되면 배로 옮겨실지 않고 열차로 목포·부산까지 실어나르는 게 가능해진다.

전남교육청은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 열차학교를 TKR-TSR(시베리아 횡단열차)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당시 경색된 남북 관계 탓에 TKR을 이용하지 못했다.

전남교육청에서 발대식을 한 참가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가 그곳에서 시베리아를 횡단, 모스크바로 달렸다.

정부는 정·재계와 학계, 문화계 인사와 대학생 등 250여명이 열차를 타고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2015'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한반도중단철도가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이다.

OSJD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연계를 통한 대륙철도 운영을 위해 가입이 필수적이다. OSJD는 철도운영에 있어서 교통신호부터 운행방식, 표준기술, 통행료 등 모든 요소에 통일된 규약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6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43차 OSJD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안이 의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했으나 정회원인 북한이 끝까지 반대해 무산됐다. 정부는 아쉽기는 하지만, OSJD 정회원 가입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유라시아 20여개국 장관·차관을 포함한 40여개국 정부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도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일련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태리소파

이태리가구, 소품

통나무가구

가구빌딩 지하~5층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